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실적 시즌 기대감에도 중국발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2일(월) 미국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속 메타(+3.4%)의 신규 AI 모델, MS(+1.1%)의 신규 AI 칩 발표에도, 브로드컴(-1.9%) CEO의 AI 자본 조달 경고성 발언, 중국 CXMT의 차세대 DDR5 출시 계획 공개에 따른 마이크론(-3.9%), 샌디스크(-6.0%) 등 반도체주 부진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4%, S&P500 -0.1%, 나스닥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주도주인 반도체주는 여전히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주가가 전망을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보니, 최근 반도체주의 부진한 주가 흐름이 노이즈성 뉴스플로우에도 시장의 반응을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전일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DR5 출시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및 공급 확대 우려 -> 2027~2028년 메모리 3사의 마진과 점유율 축소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논리를 생성시키고 있는 모습.

물론 CMXT가 양산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공개 및 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수율, 성능, 고객 인증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함. 결국, 중국발 차세대 메모리 공급 과잉을 현 시점부터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만큼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취약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 가능. 따라서 이번 달 예정된 반도체, 빅테크 등 AI 밸류체인 실적을 통해 이익 가시성을 확보할 지가 관건이며, 이들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휴장 기간 중 미국 증시 변화를 반영하면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장중에도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등 양 시장 내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연속 출회된 여파로 3% 넘는 급락세로 마감(코스피 -3.7%, 코스닥 -4.8%)

금일에는 중국 CXMT발 미국 반도체주 약세 여파가 장 초반 변동성을 유발하겠으나, 미 10년물 금리 상승세 진정, 최근 연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및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장중 반등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

현재 코스피는 지난 4거래일간 연속으로 급락을 하면서 6,300pt선까지 내려간 상황(4거래일 누적 등락률, 코스피 -8.9%, 코스닥 -4.9%). 그 과정에서 직전 저점(장중 기준, 6,439pt)을 하회한 가운데, 200일선(6,376pt)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기술적인 추세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200일선은 7월 폭락장 후반인 29~30일 이틀간 하향 이탈한 뒤 31일 급반등을 통해 회복했던 이평선으로, 중장기 추세 판단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했던 상황. 전일 장중 200일선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한 이후 200일선 위로 올라온 채 마감하기는 했지만, 금일 포함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200일선 지지력 유지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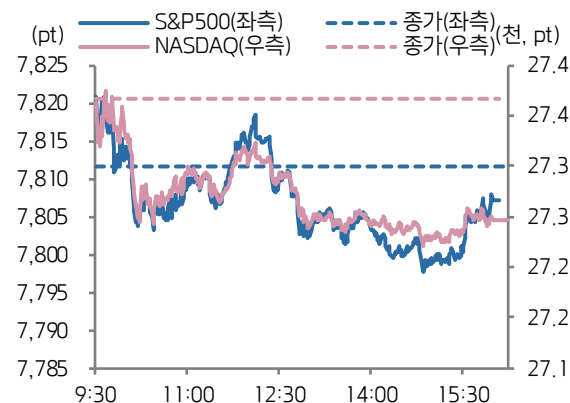
일단 4거래일간 9% 가까이 급락한 점이나 선행 PER이 5배를 하회하며 7월 폭락장보다 낮은 PER를 기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기술적,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단기 반등의 여건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200일선 지

지 여부를 넘어 지난 8~9월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 국면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증시의 회복 궤도 재진입이 미국 금리 추가 상승 위험 등 매크로 부담 완화 여부,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의 27~28년 이익 추정치 상향을 통한 이익 가시성 개선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

최근 개인들의 투자심리 약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종료(SK하이닉스는 10월 20일 종료 예상), 외국인 순매도 등이 중첩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이 약화된 상황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매크로 및 실적 불확실성이 시장 수급 주체들의 매수 수요를 약화시킨 가운데, 그간 수급 완충 역할을 했던 자사주 매입까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매도 압력에 대한 증시의 수급 체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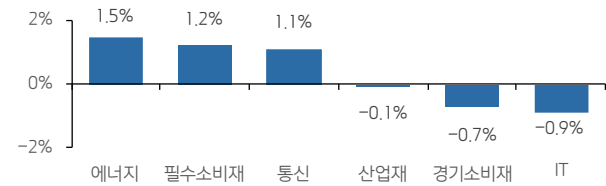
결국, 현시점에서는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지수 반등 → 주중 미 9월 CPI 및 ASML, TSMC 실적을 통한 매크로 및 이익 불확실성 일부 완화 가능성 → 외국인 수급 안정 → 지수 회복 국면 재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이를 고려 시, 추격 매도에 동참하기 보다는, 이익 전망이 양호함에도 연쇄 급락을 맞은 대형 반도체 및 소부장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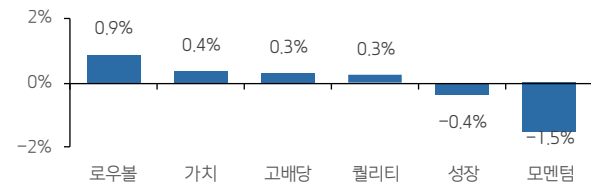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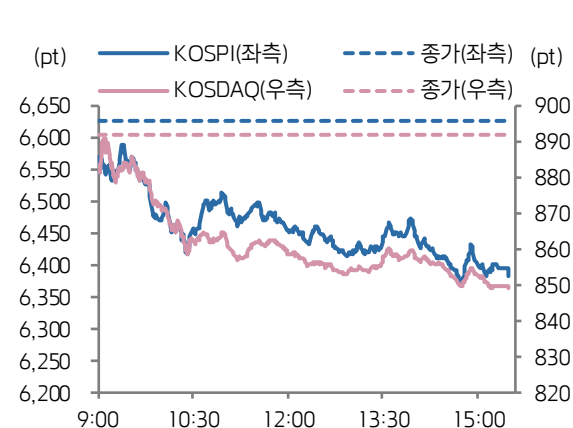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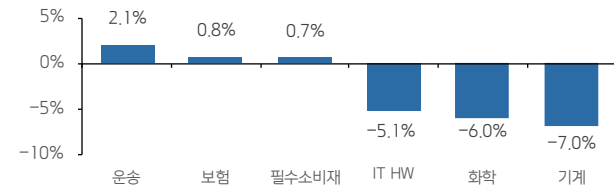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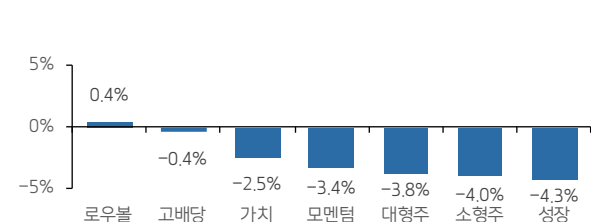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40.97	+1.29%	+25.42%	GM	82.37	-0.44%	+1.29%
마이크로소프트	541.15	+1.14%	+11.9%	일라이릴리	1,182.62	+0.28%	+10.04%
알파벳	352.72	+0.3%	+12.69%	월마트	113.08	+1.55%	+1.5%
메타	742.96	+3.38%	+12.55%	JP모건	334.30	+0.39%	+3.75%
아마존	259.53	-1.11%	+12.44%	엑손모빌	172.15	+1.9%	+43.05%
테슬라	378.03	-1.22%	-15.94%	세브론	215.00	+1.42%	+41.07%
엔비디아	226.32	-1.29%	+21.35%	제너럴일렉트릭	113.08	+1.6%	+1.5%
브로드컴	354.73	-1.88%	+2.49%	캐터필러	799.37	-0.14%	+39.54%
AMD	594.24	-2.28%	+177.47%	보잉	189.50	-0.46%	-12.72%
마이크론	989.04	-3.88%	+246.53%	넥스트에라	78.51	+1.5%	-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384.24	-3.65%	+51.49%	USD/KRW	1,335.50	-0.61%	-7.22%
코스피200	1,004.92	-3.79%	+65.83%	달러 지수	102.58	+0.36%	+4.33%
코스닥	849.19	-4.83%	-8.24%	EUR/USD	1.12	-0.4%	-5.03%
코스닥150	1,451.37	-5.31%	-6.2%	USD/CNH	6.69	+0.03%	-4.03%
S&P500	7,807.24	-0.06%	+14.05%	USD/JPY	158.61	+0.19%	+1.21%
NASDAQ	27,245.90	-0.44%	+17.23%	채권시장			
다우	51,850.55	+0.38%	+7.88%	가격	DTD(bp)	YTD(bp)	
VIX	15.21	+2.49%	+1.74%	국고채 3년	3.918	-7.9bp	+96.7bp
러셀2000	2,794.48	-0.45%	+12.59%	국고채 10년	4.297	-11.5bp	+91.2bp
필라. 반도체	12,236.79	-2.67%	+72.76%	미국 국채 2년	4.787	+0bp	+131.4bp
다우 운송	19,759.08	-0.23%	+13.84%	미국 국채 10년	5.238	+0bp	+107.1bp
상해종합	3,797.24	-0.43%	-4.32%	미국 국채 30년	5.596	+0bp	+75.2bp
항생 H	8,168.57	+0.25%	-8.36%	독일 국채 10년	3.477	-0.4bp	+62.2bp
인도 SENSEX	71,924.68	-0.76%	-15.6%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201.21	+0.45%	+7.08%	WTI	93.74	+2.06%	+64.69%
MSCI 전세계 지수	1,146.50	-0.07%	+13%	브렌트유	106.65	+1.84%	+75.27%
MSCI DM 지수	4,963.27	+0.02%	+12.03%	금	4,190.60	-0.61%	-6.82%
MSCI EM 지수	1,697.03	-0.69%	+20.84%	은	60.51	-0.88%	-14.29%
MSCI 한국 ETF	170.11	-4.02%	+74.97%	구리	674.70	+0.82%	+18.74%
디지털화폐				BDI	2,917.00	-1.88%	+55.41%
비트코인	82,990.06	-0.7%	-5.31%	옥수수	483.00	+0.68%	+4.89%
이더리움	2,516.62	-0.75%	-15.48%	밀	672.25	+0.19%	+19.03%
				대두	1,287.75	-0.33%	+20.97%
				커피	290.60	+1.27%	-7.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